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 이라고 불립니다. 해서 이 말씀은 결혼식 말씀으로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결혼식 주례 말씀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사랑의 결핍과 분열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촉구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우리가 이땅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덕목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저~기 어디엔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해석하시는게 맞아요.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 한숨 나오고 답답해도,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해 봐야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기를 간절하게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어쩌면 내 인생에 대박이 나고 꽃길을 걷게 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세가지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과 온전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 책이 있습니다.

어느날 왕자님이 이웃나라에서 코끼리를 선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한 마을의 6명의 장님들은 코끼리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님이 우리가 가서 보자고 해요. 어떻게요? 만져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는데, 6명이 각각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의 경험을 말하는데 어째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고서 전체를 다 아는듯 말합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져 보고는 둥근 기둥처럼 생겼다, 코를 만지고는 뱀처럼 생겼다, 머리를 만져 보고는 바위같다, 꼬리를 만져보고 새끼줄 같더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우겼

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자님이 말하길, ‘코끼리는 하나인데, 장님들은 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때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한분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모습은 제 각기 일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이유가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표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분이라는 말이 4번, 온전이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11절에 ‘어린아이와 같고’ 라는 것이 4번 반복되었는데, 그 의미가 ‘부분적’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요. 또, 12절에 ‘희미하나’ 라는 표현 역시 ‘부분적으로’ 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9번이나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아는것,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 보는 것, 즉, 인간의 경험은 부분적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것이 뭐길래!!!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참 중요해요. ‘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는 관심없어.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게 좋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나 혹 주변에 있으시더라도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말씀/경험 나누죠!)하니

*부분적 [메로스] ‘조각, 부분, 각자, 개인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은,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수준에서 머문다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참 잘 알아요. 거의 온전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에게 손해가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소견대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나중심적이기 쉽다는 의미예요. 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가진 것을 자랑했더니 성도들 간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

분명히 어제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밭에 비유에서 나뉘던 것과같이, 한 는 옥토였어도, 늘 밭을 갈아 있지 않으면 금세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성도들끼리(누구 끼리요?) 서로의 은사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파생되었던 문제는 사랑이 깨졌던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자랑했더니 사랑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이라고 할찌라도 말입니다. 가진 것으로 서로가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진 것 때문에 서로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불완전하므로 생기는 문제였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경험은 부분적이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해서 바울은 말하길 모든 은사에 앞서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은사들이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했던 기록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인내: 오랫동안이 아니라 변치않음의 의미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도 인내가 없으면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을 받지 못하는데요!

성경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영적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끝까지 서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단지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서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혹자들은 말할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교회만 다니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되요. 믿음의 걸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내란, 헬라말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이라는 뜻이 아니라 “변치 않음” 을 말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오래다녔어.’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갈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도 변치 않는 걸 말합니다!

평소에는 내 믿음도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수 믿음으로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 때, 일들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변찮는 믿음으로 서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내 인맥과 재력과 학력에 의존해서 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사랑과 인내함으로 끝까지 서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은 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베푼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우리가 온전을 향해 가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게 좋으세요? 지는게 좋으세요? 많은 경우에 이기는게 좋죠. 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저서 행복한 일들도 있는 법이에요. 부부 싸움이나, 부모 자식간의 다툼에서는 지는 것이 행복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저도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기면 그게 이기는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 예를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대목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 빨리 읽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구요.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아브라함인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우하면 너는 좌를 택하도록 해! 그것만도 감지덕신 줄 알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평소에 지는 걸 좋아하는 성경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지는 길이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평소에 주님을 높이는 훈련,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겨주는 훈련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나길 소원합니다. 이걸 내가 분명히 손해보는 것같은 그 때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회야!’ 라고 여기고 주님 때문에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이 후에 능력이 되는 것을 저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믿음까지도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정만 해도 우리 삶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당한 일을 해도, ‘저 사람이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해서 그렇지! 나처럼 말이지!’ 아내나 남편이, 아이들이 그래도 우리는 덮어주고 포용할 수 있게됩니다. 베드로전서 4:8,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 부족한 부분들, 온전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한 것들을 사랑은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분적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닦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며 살 때, 부족한 부분들은 덮여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상대방을 통해서 어렵פות이나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